

정의선-최태원 회동, 두 달 만에 결실... 전기차 생태계 구축 협력

현대차-SK이노, '배터리 생산·재활용' 등 선순환 맞손

전기차 생애주기 전 과정 협력
배터리 개발·관리하고 재활용
친환경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미래모빌리티 경쟁력 향상 기여



정 의 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SK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이 기아차 니로EV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7월 '배터리 회동'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방향성을 공유한지 두 달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현대차그룹 계열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이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통제를 통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8일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은 ▲리스·렌탈 등 전기차 배터리 판매 ▲배터리 관리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빌리티-배터리사 간 협력 체계를 검증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해 이뤄졌다.

그동안 배터리 공급 중심으로 이뤄졌던 모빌리티-배터리 기업 간 협력과는 달리, BaaS라 불리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감안한 선순환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모빌리티-배터리 업계에 보다 다양한 협업 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측은 ▲재활용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소재 공급 안정성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전기차와 배터리 재사용을 연계한 최적설계 및 이를 통한 부가가치 최대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니로 EV'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을 수거해 검증하는 실증 협력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기 어려운 배터리를 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기차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현대차그룹 관계사 및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인프라와 역량을 결합시켜,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조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사장)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1차 배터리 공급사인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은 모빌리티-배터리사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전기

차 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주도하는 현대기아차와 배터리 개발과 재활용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생애 전 과정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배터리 전후방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궁극적으로 그린뉴딜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한국수력원자력, 바르질라, OCI, 한화솔루션 등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 확보 및 시장 개척에 힘써왔으며, 이번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프라를 확보해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영역 또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등 동반성장 최우수사 35곳 선정

동반위 2019년도 평가 결과

삼성전자 9년 연속 이름 올림
SKT·기아차·LG생건 등 포함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KT, LG전자, SK텔레콤 등 35개사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가맹업종인 더페이스샵, GS리테일 그리고 광고업종인 제일기획도 처음으로 최우수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서원유통, 심텍,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는 동반성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서울 반포동 웨라튼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전년도 기준 동반성장지수는 이듬해 6월마다 공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수의 산정·공표에 필요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상승 기업〉

구분	기업명
2단계 상승 (6곳)	양호→최우수: 더페이스샵, 대림산업 보통→우수: 한샘, 한화, CJ올리브영 미흡→양호: 서연이화
1단계 상승 (25곳)	우수→최우수: 삼성물산(건설부문), 세메스,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차, SK하이닉스, GS리테일(GS25) 양호→우수: 동원F&B,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우리홈쇼핑, 삼성물산패션부문, 신세계인테리어, 현대로템, 현대위아 보통→양호: 성우하이텍, 코스트코코리아, 한솔테크닉, 흥플러스, DB하이텍 미흡→보통: 한솔섬유

절차 등이 미뤄지면서 9월에 하게 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2011년 실적을 대상으로 이듬해 처음으로 내놨다. 올해 평가에 따라 삼성전자는 9년 연속, SK종합화학과 SK텔레콤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명예기업이 됐다. 이외에 기아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도 연속으로 최우수 동반성장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앞서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계를 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유·불리를 해소한 결과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에 집중돼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종, 광고업종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기업'에 참여한 기아차, 네이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도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 포함돼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7개 회사가 '미흡'을 받은 가운데 영풍전자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동시에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반위는 영풍전자에 대해 '상생협력법 제20조2 제4항' 및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에 근거해 자료제출요청을 했지만 결국 협력사 명단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 최종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반위는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가 진행 중인 7개 회사에 대해선 등급 공표를 유예했다. 이들에 대해선 향후 협약 이행 평가 결과 확정시 이를 반영, 공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호산업, 다스, 덴소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켈, 롯데마트, 볼보그룹코리아,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신원, 아성다이소, 오비맥주, 오택캐리어, 인터플렉스, 코리아썬키트,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솔섬유, 화승알앤에이, BGF리테일, S&T모티브 23개사는 '미흡' 위 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휠라 입은 '겔 버즈 라이브' 패키지 2000대 한정 판매

겔럭시 버즈 라이브가 스포츠 브랜드 휠라 디자인으로 특별한 한정판을 만들어 냈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겔럭시 버즈 라이브 휠라 액세서리 패키지(사진)'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겔럭시 버즈 라이브 미스틱 화이트 모델에 휠라 운동화를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3종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휠라 로고 케이스와 신발박스를 모티브로 한 스쿼어 케이스, 스니커즈 디스립터 모양으로 만든 키링 등이다.

가격은 20만9000원이다. 2000대 한정판으로, 9월 9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 채널에서 판매한다.

/김재용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인재 지원 참가자 모집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를 적극 지원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4일 '카카오 i 리서치 프로그램'에 박사 학위 졸업생들을 위한 포닥(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오픈하고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 i 리서치 프로그램은 2017년 말부터 시작한 AI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다. AI 분야 연구와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와 산학협력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범위를 확대해 포닥 프로그램까지 신규 추가하게 됐다.

모집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음성인식, 음성합성,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싱 등 총 12개 분야다. /유서운 기자 yun2514@

LG전자 SW공인시험소, 기능안전도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LG전자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역할을 확인했다. LG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SW공인시험소를 소프트웨어 기능안전(IEC61508-3)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국제표준규격 IEC 61508-3은 이동

형 로봇을 포함한 전자·전기 제품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행 기능을 탑재한 이동형 로봇은 움직일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되고 개발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안전을 시험하게 된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국제표준



규격 IEC 61508-3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코딩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소프트웨어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시험해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